

弔詞

◎文：大韓民國國際道德協會

翻譯：張容榕

故 潘風明點傳師 靈前

您想將大道分享給所有的眾生，但現在怎麼離我們遠去了呢？此刻您戰勝了所有的苦痛，也完成了宏誓大愿，享年63歲的您，成為上天必需的人才，並在 老中的懷抱中永眠了。

此時您的歸空，使無助的我們也只能讓您回到 上天老中的身邊。雖然心痛、即使傷心，但在生與死面前，這自然的規律，是我們無法違反的定律。

生前您所展現的熱情、您的溫暖與慈悲，在台灣與韓國一貫道文化的交流裡，以不同於其他人的修行典範，給予大韓民國道親們很好的感觸與感應。您所去過的每個地方，所傳送給我們敦厚、仁慈風範的馨香，大韓民國道親們不但永遠不會忘懷，也一定會加以珍藏。

故 潘風明點傳師啊！

您戴著雪白的翅膀，翩翩地飛向無極理天、歸空了。請您幫助白陽盛世 老中娘的道盤，不只是護持台灣道親，也請幫助全世界所有的道親，都能修道、都能完成各自的使命與愿力，直到最後。

南無天元太保阿彌陀佛！

南無天元太保阿彌陀佛！

南無天元太保阿彌陀佛！

謹於 故 潘風明點傳師靈前呈上弔詞

大韓民國道親一同

中華民國100年歲次辛卯8月3日



조사

◎문 : 대한민국국제도덕협회

번역자 : 장용용

고 반풍명 점전사 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에게 도를 나눠주고 싶어 어찌 가셨나이까? 이제 수많은 인고 다 이기시고 홍서대원 마치시어 63세의 일기로서 상천에서 필요로 하시는 인재 되시어 노모님 품에 안기시니 영면하시옵소서.

이제 상천노모님 곁으로 보내드려야만 하는 님의 귀공!

저희의 마음은 너무도 아려오고 슬프지만 삶과 죽음 앞에 자연의 섭리를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전에 보여주신 열정! 그리고 온화함과 자비로 대만과 한국에 일관도 문화의 교류 속에서 남다른 수행의 모범으로 대한민국 도친들에게 감응을 주셨고 가시는 곳마다 덕스러운 풍모의 향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도친들은 당신의 향기를 영원히 잃지 않고 간직할 것입니다.

고 반풍명 점전사 님이시여!

이제 귀공 하셨으니 새하얀 날개 달으시고 무극이천 훨훨 날아 백양성세 노모님 도관 도우소서! 그리하여 대만 도친 뿐만 아니라 세계 도친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행하여 각자의 원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살피 주시옵소서!

나무천원태보아미타불!

나무천원태보아미타불!

나무천원태보아미타불!

삼가 고 반풍명 노점전사의 영전에 이 조사를 바치옵니다.

대한민국 도친 일동

신묘년 8월 3일